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1	I. 서론
	II. 남북 관광사업 현황
1	1. 금강산 관광
5	2. 개성관광
6	3. 평양 및 백두산 관광
	III. 남북 관광사업 평가: 효과와 문제점
8	1. 관광사업의 효과
10	2. 대북 관광사업의 문제점
	IV. 남북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11	1. 대북 관광사업 활성화 방향
12	2. 대북 관광사업 활성화 과제
19	V. 정책사항 및 결론

I. 서론

대북 관광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광사업이 중요한 것은 관광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사업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대북 관광사업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남북간의 통합 효과를 발휘한다.¹

첫째, 남북간 경제적 불균형, 즉 남북 주민간의 소득불균형과 남북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효과다. 둘째, 남북간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문화통합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셋째, 관광을 통한 국토통합의 역할, 즉 관광공간의 재배치로서 국토기능의 균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한민족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정치통합의 기능과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남북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남북 관광교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관광사업 전체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주대상은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이는 대북 관광사업이 실제 금강산 관광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북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단연 크기 때문이다.²

II. 남북 관광사업 현황

1. 금강산 관광

가. 사업현황

금강산 관광사업은 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다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육로관광이

¹ 노경수, 『통일을 대비한 관광진흥정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 11~14.

² 2003년 말 현재까지 남북경협 사업에 투자된 총 1억 9,600만 달러 중 금강산 관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억 4,481만 달러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김영운,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26.

실시되면서 전기를 맞았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을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2002.10.23)하고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2002.11.25, 평양방송)하면서 관광사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금강산 관광은 2003년 10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육로로만 매일 출발하는 당일, 1박 2일 및 2박 3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 11월 관광시작 후 2005년 8월 말까지 총 1,051,832명이 관광에 참가했다. 한편 2005년 9월 1일부터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축소(600명/일) 조치가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 7주년을 맞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정상화되었다. 2005년 11월 중순까지 총 약 114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했다.

관광객의 증가로 금강산호텔(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금강산패밀리호텔 신축, 옥류관, 제2온정각 개관 등 관광시설이 확충되었다. 금강산 지역내 북한측의 사업 참가도 확대되어 ① 교예단 및 합주단 운영, ② 금강원식당 자체 운영, ③ 금강산호텔 내 식당 및 스카이라운지 임대 운영, ④ 남측 식당 내 서비스, ⑤ 노점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투자현황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는 민간사업체가 직접 지출한 민간투자와 정부가 금강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정부투자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5년 3월 현재까지 민간차원에서 약 6억 6,866만 달러, 정부 차원에서는 약 1,172억 1,600만 원이 투자되었다. 민간투자는 현대아산이 5억 8,731만 달러, 다른 기업들이 8,135만 달러를 투자했다.

<표 II-1> 금강산 사업 민간투자 및 지출내역

(단위: 천 달러)

현대아산 직접 투자 및 지출		타 기업 투자	합계지출
관광 대가	시설 투자		
430,424	156,881	81,351	668,656

자료: 현대아산, 내부자료(2005.8).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지출된 금액의 대부분은 북한에 지불한 관광 대가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1998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4억 3,042만 달러를 북한에 관광대가로 지불했다.³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아산이 직접 투자한 비용 총 1억 5,688만 달러의 세부 내역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현대아산의 금강산 직접 투자 내역

(단위: 천 달러)

	투자금액	비 고
부두시설	78,681	
온천장	17,326	관광공사에 100% 지분매각
해금강호텔	11,058	
문화회관	7,528	관광공사에 100% 지분매각
온정각	6,774	관광공사 60% 지분매각
숙박시설	5,586	금강산호텔 등
금강/온천 빌리지	941	금강빌리지, 온천빌리지 등
기타 시설물	28,717	안내시설, 부대시설, 해수욕장 등
합 계	156,881	

자료: 현대아산 내부자료 (2005.8).

현대아산은 이 중 온천장과 문화회관의 지분 100%, 온정각 지분의 60%를 한국 관광공사에 매각했다. 현대아산 외 24개 민간협력사업자들은 숙박시설로 1,212만 달러, 위락시설 6,107만 달러, 판매시설에 816만 달러 등 총 8,135만 달러를 투자했다.

³ 애초 현대는 북한에 금강산 관광대가로 관광시작(1998.11.18) 다음 달부터 2005년 초까지 총 9억 4,200만 달러(US\$)를 지불하기로 합의(1998.10.29)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봉착한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해로관광에 대해서는 1인당 100달러, 육로관광 1인당 50달러로 관광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두 합의·변경(2001.6.8)했다. 이후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는 관광대가 조정에 관한 합의를 체결(2005.5.25)하고 2005년 5월부터 2박 3일 관광에 1인당 70달러, 1박 2일 관광에 35달러, 당일 관광에 1인당 15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관광대가가 매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현대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표 II-3>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사업자 투자금액

(단위: 천 달러)

	투자금액	비 고
숙박시설	12,118	팬션, 포레스트돔, 가족호텔 등
위락시설	61,073	골프장, 나이트클럽, 3D입체영상 등
판매시설	8,160	관광식당, 횡집, 면세점, 편의점 등
합 계	81,351	

자료: 현대아산, 내부자료 (2005.8).

한편, 정부 차원의 투자를 보면 2005년까지 총 1,172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유·무상 지원 1,137억 원(2001~2004)과 남북협력기금 무상 지원 34억 9,700만 원(2005)이 포함되어 있다. 유상지원은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현대아산 소유인 금강산지역의 숙박시설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것을 말한다.⁴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시설(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일부)을 인수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84억 원은 신용으로, 116억 원은 담보⁵로 총 9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 개시 2001년 1월 5일부터 상환 개시일까지 이자율 연 1.0%, 상환개시일 이후는 연 4.0%다.

<표 II-4>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및 수익 현황

(단위: 억 원)

	총 자산가치	투자금액	임대수익	비 고
온천장	355	355	7.83	100% 지분
문화회관	300	300	15.53	100% 지분
온정각	409	245	2.28	60% 지분
합 계	1,064	900	25.64	

주: 온천장과 문화회관의 임대수익은 임대료(2002.9~2004.12), 온정각의 임대수익은 이익배분액(2002~2003).

자료: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내부자료 (2005.8).

⁴ 통일부는 현대의 자금난으로 인한 금강산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⁵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의 100% 지분 소유인 제주중문골프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인수자산의 운영권을 현대아산에 위탁하고 사업수익금만 배당받는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수익(2002.9~2004.12)은 온천장 임대료 7억 8,300억 원, 문화회관 임대료 15억 5,300만 원, 온정각 이익배분 2억 2,800만 원 등 총 25억 6,400만 원에 달한다.

투자대비 총 수익률은 온천장은 2.21%, 문화회관은 5.17%, 온정각은 0.93%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평균 수익률은 2.85%에 불과하다. 상기 수익률은 통계청 제시 국고채 이자율 2002년 5.78%, 2003년 4.55%, 2004년 4.11%(3년 평균 4.81%)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5>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자산별 투자 및 수익

(단위: 백만 원, %)

	투자액	수익현황				투자 대비 수익률
		2002 (9~12)	2003	2004	소 계	
온천장	35,500	37	160	586	783	2.21
문화회관	30,023	60	275	1,218	1,553	5.17
온정각	24,477	113	115	-	228	0.93
합 계	90,000	210	550	1,804	2,564	2.85

주: 1. 온정각은 회계용역 결과치
 2. 수익률은 지난 2년 4개월간(2002.9~2004.12)의 총 투자대비 총 수익률
 자료: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내부자료 (2005.8).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투자는 금강산 사업의 중단위기를 극복, 관광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한국관광공사의 북한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우러져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성관광

개성관광은 원래 2003년 12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개성공단 건설이 지체되고, 비무장지대 통행과 관련된 남북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었다. 2005년 들어 개성공단 건설이 가시화되고 시범공단에의 입주와 함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3차례의 시범관광이 실시(2005.8.26, 9.2, 9.7)되어 1,500여 명이 이에 참가

했다.

시범관광의 내용은 개성 시내(성군관, 선죽교, 고려민속관, 송양서원 등)와 박연폭포, 공민왕릉, 왕건릉 등을 방문하는 것이었으며, 당일 관광에 19만 5천 원이 지불되었다. 모객과 차량이용은 남측 현대아산에 의해, 관광지 안내 및 중식 등은 모두 북측에 의해 이루어졌다.

개성관광은 관광시설의 부족으로 당분간 당일 관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나마 당일 관광도 북한과 현대의 갈등으로 아직 주 운영주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아산은 시범관광 후 본 관광에 대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롯데관광에 사업 참여를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롯데는 거부 의사를 표명해 놓은 상태다. 실제 현대아산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간 체결한 합의서(2005.8.18)에 의하면 개성관광은 “앞으로 시범관광을 성과적으로 마친 후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등과 실무협의를 갖고 개성지구의 본 관광을 빠른 기간 내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현대간의 갈등 관계가 개성 관광 추진에 대한 현대의 영향력과 사업 추진의 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3. 평양 및 백두산 관광

평양지역 중심의 관광사업은 평화항공여행사가 평양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신청을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2003.8.25)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이전 평화항공여행사는 금강산관광총회사 간 ‘관광계약서’를 체결(2002.7.14), 2003년 중 2,000명 범위 내에서 남측 인원 및 해외동포로 관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광지역은 평양, 남포, 묘향산, 정주, 백두산 중 선택 가능하며 관광일정은 4박 5일 또는 5박 6일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남북의 항공기가 교대로 서울과 평양간 직항로를 통해 관광단 수송을 담당했다.

평화항공여행사의 평양지역 중심 관광은 남북한간 첫 상업 목적의 항공기 운항이 실현됨으로써 항공기를 통한 상업목적의 관광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평양관광을 운영하는 평화항공여행사는 애초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 뒤,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 사업은 9차례 1,016명의 관광이 이루어진 후 북측의 요청으로 중단되었다. 북한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전력난, 안내원의 피로 등”을 이유로 11월 2일 제10차 관광부터 중단을 요청했다. 평양관광 재개는 2004년 4월 20일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현대아산과 평화항공여행사 간의 독점권을 둘러싼 갈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아산은 북한 전역에 대한 관광의 독점적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들어 2004년에 평화항공여행사 측이 평양관광을 계속할 시에는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평화항공여행사의 평양관광과는 다른 차원에서 1,1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류경정주영체육관 준공식 참석을 위해 남북관광사업 최초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2003.10.6)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대규모 평양방문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북한의 아리랑공연 참관이 그것이다.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7,200여명 이상의 남한 주민이 평양을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백두산 관광은 현재 시범관광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원래 2005년 시범관광을 2회 실시한 후,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대-북한과의 갈등 문제로 지연되었다.

백두산 관광은 현재 표면상 현대아산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현대아산은 일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주력하는 한편, 독점권을 주장하는 원칙적인 대응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

이와 같은 상황 하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활주로 개보수를 위해 50억 원에 상당하는 아스팔트 용재와 병커C유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었으나, 부실공사에 따라 재포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활주로 공사에 필요한 3,500톤 및 백두산 정상 부근 도로의 추가 포장에 필요한 4,500톤 등 총 8,000톤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⁷

⁶ 『한국경제』, 2005년 10월 30일.

⁷ 『동아일보』, 2006년 1월 21일.

Ⅲ. 남북 관광사업 평가: 효과와 문제점

1. 관광사업의 효과

가. 경제적 효과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 관광을 평가할 때 최우선적 기준은 수익성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관광공사의 수익성은 온천장 2.21%, 문화회관 5.17%, 그리고 온정각은 0.93%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총 투자 대비 수익률은 2.85%에 거치고 있어 국고채 이자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대아산은 아직도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시작한 지 8년차인 현재까지 정부 및 민간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수익성을 거의 확보해 주지 못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은 IMF 관리체제하 기업 구조조정의 물살이 엄청날 때, 사업 시작부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에 제공하는 관광대가가 너무 높았던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고용, 생산, 수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 곧 산업협력의 차원에서 볼 때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다. 관광사업이 비록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는 하나, 북한의 산업 발전과 관련된 파급효과는 제조업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에 일임, 관광산업의 기반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북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도 현대아산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현대아산 이외 여타 24개 민간협력사업자들의 총 투자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8월 현재 8,135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2005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강산관광 중소 협력사업체들의 경우, 1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적자 상

태”이고, 3개 업체가 “손익분기점 상태”이며, 단 1개 업체만 “흑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비경제적 효과

경제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금강산 사업을 비롯한 대북 관광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금강산 관광이 북한 상황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부자유스럽게 움직이고, 먹거리·볼거리 등 현지에서의 위락적 요소가 결여된 일종의 ‘등산관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강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남북이 당면해 있는 현실을 얼마든지 직시할 수 있다.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둘째, 금강산 지역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돌파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그 자체로 남북간의 일종의 정치·군사적 신뢰조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폐쇄적 관광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북한이 군항을 개방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 의지까지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해로관광에서 육로관광으로 전환, 비무장지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은 본 사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자세의 일면이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함께 화해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1999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⁸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산을 다녀 온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한간 교류·협력,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의 변화, 긴장완화를 통한 국가 신인도 증대, 서해 교전 사태에 대한 조기 진정 등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대결 구도의 약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⁹

⁸ 본 설문조사는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없는 집단 205개, 금강산을 방문한 집단 1012개, 북한 전문가 집단 20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⁹ 강원택,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연구 결과보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p. 19.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을 통한 대북 정책의 국내 여론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대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적 여론을 형성시킨 것이 이를 의미한다. 비록 많은 남한 주민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에는 동의해도,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는 방법 면에서는 비판적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 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대북 사업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점이 대북 경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2. 대북 관광사업의 문제점

대북 관광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먼저 관광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북한의 정책 변화가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관광사업뿐 아니라 대북 경험이 당면해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진 문제로 빚어진 현대와 북한과의 갈등도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상화 되었으나,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현대아산의 독점적 구조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현대와 북한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관광사업이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거나 김정일 위원장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판단될 경우(민영미씨 억류, 사스(SARS) 및 정몽헌 회장의 사망에 따른 중단 통보 등), 남한과의 합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인 선언이나 통고만으로도 언제든지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수록 관광사업뿐 아니라 대북 사업 자체가 북한에 의해 끌려간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둘째, 대북 관광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금강산과 같이 관광지로의 접근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를 포함, 관광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점, 위락시설 및 남북 주민간 교류·화합성 이벤트 프로그램(예: 문화·음악행사 및 전시회 개최, 장마당, 음식축제를 비롯,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 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관광대상지, 특히 평양의 경우에는 대부분 김부자 우상화 및 전통문

화유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남한측 방문객은 북한측의 체제 선전활동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측 안내원들은 남한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유도하는가 하면, 김부자 이상화와 민족의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북한의 혁명유적지나 전통문화 유적지 관련 허위·과장선전에 대한 사전 인지가 없는 가운데 남측 방문자들은 북측 선전을 일방적으로 경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V. 남북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1. 대북 관광사업 활성화 방향

남북한간의 관광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간 관광분야의 사업은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교류는 경제교류·협력과 달리 인적 교류가 주를 이룬다. 원만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간에는 큰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밑거름이자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관광분야의 교류·협력이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의 활성화와 북한의 체제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북한정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간의 관광교류는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남북주민간의 이질성은 무엇보다도 분단에 따른 상호교류가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대북 관광사업은 자연경관을 탐승하는 순수 목적의 관광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상봉과 연계된 겸목적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교류에 북한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고 관광부문의 개발이 북한지역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방향으로 관광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관광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답사하거나, 여행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급자 위주의 상품개발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우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북한은 이미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통해 특구내 자유관광의 바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제2조)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한 “관광여행은 단체별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10조)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개성과 같은 경제특구에서의 관광은 개성을 개성공단과 연결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 개성에서의 자유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대북 관광사업 활성화 과제

가.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인식 재정립

(1) 정부 및 공기업 차원

대북 관광사업이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기업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광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경협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중시, 기업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금전적 희생을 계속 감내하게 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논리의 정당성과 함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정부는 이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을 열어 관광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북 사업 지원이 주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투자에서 이루어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공기업은 대북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광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함, 협상 전문가, 법 전문가, 심리 전문가를 활용하여 그들이 대정부 설득자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민간차원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식변화는 대북 관광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을 위해 입산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대금은 일종의 비자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 따라 비자 수수료만 해도 100달러에 가까운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만 하더라도 3개월 비자를 받는 데 50달러 정도를 낸다. 금강산 지역의 경우에는 그 곳을 북한으로부터 임대해 남한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남한 사람들을 받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만큼, 장소 사용료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관광이 환경감시인이 동반된 제한적 등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금강산 관광이 자유관광이 되어 때와 장소에 제한없이 취사나 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수려한 계곡은 온갖 쓰레기로 넘쳐났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질서 속에서의 등산관광을 환경보존의 의지로 보아도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3) 기업차원

기업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은 현재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호텔이나 식당, 연회장을 스스로 운영하여 돈을 버는 자본주의 연습을 하고 있다. 북한이 벌리는 ‘장사’이지만 영업권에 상당하는 비용을 남측에 지불하고 있다. 금강산 지역 곳곳에 북측이 벌려놓은 좌판(매대)만 하더라도 남측에 자리세를 내고 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산꼭대기라도 힘들게 지고 오르는 모습도 연출된다. 이와 같은 의식을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금강산 관광지구는 자본주의 학습장이다. 남한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갖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 관광개발 및 관광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및 기구 구성

남북한간에는 관광부문의 교류·협력의 증대와 함께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남북관광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상호 신뢰성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합의서는 남북한간의 약속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는 강제성을 띠게 된다.

합의서는 공동 관광자원 개발과 투자유치 및 관광교류 등에 관한 남북관광교류·협력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안정성 보장, 투자자유지역의 지정, 관광자유지역의 지정 등으로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지원 및 기반시설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남북관광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본합의를 통해 관광절차 간소화와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담을 필요가 있다.

합의서를 기반으로 '남북관광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 남북한 공동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당국간 관광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회는 남북한 관광부문의 인적 교류 증대와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관광교류 추진 체계를 구성, 남북관광자원 공동조사, 남북 국제투자유치, 남북관광사업 등의 분야로 나누어 상호의 사교환 및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 내에는 다시 남북한 관광담당 실무자 중심의 '남북관광교류협력단'을 구성·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광교류협력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한 관광지역으로의 이동의 편리와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가 체결된 상태다. 통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보장(제2조 1항),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 보장(제2조 2항) 및 자동차와 열차의 출입을 비롯, 7일 이내의 체류에 대한 미등록 합의 등이 이루어져 있다. 이에 준해 대북 관광을 위한 출입의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관광 관련 국제회의 및 박람회에 남북한의 공동참가, 외국 관광객의 남북한 상호 직접왕래,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홍보 및 선전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다. 남북한이 순수관광부문에서 관광홍보 및 선전, 예를 들어 남북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선전물(영화, 책자)의 제작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해외관광객의 유

치활동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백두산이나 설악산·금강산을 비롯하여 관문점·비무장지대 등 특정 지역을 개방하여 남한주민과 해외 여행객의 자유이동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북한의 개방지역에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과 관광을 주선하고, 상봉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 사업주체 및 역할분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진 것은 일개 민간기업이 노력한 결과였으나, 정부의 참여없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정착에의 기여라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지원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 관광사업의 향후 추진 주체와 형태는 다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대북 관광사업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적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업내용이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관광사업이 기존의 상태에서 좀 더 발전된 민간기업(현대아산)과 공기업(한국관광공사)이 공동운영하는 공사합동기업 형태로 추진하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사는 업무를 분담하여 관광지역 개발은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운영은 현대아산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장기적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확립하고 금강산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스포츠 및 위락시설을 충분히 갖춘 대규모 국제 관광휴양지로 건설하되, 재원의 상당부분을 대내외 투자 유치로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성지역의 경우, 개발 및 특히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에 치중하면서, 국내외 관광객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아산은 관광사업부문을 전담하여 남북한 당국이 관광사업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도출시켜 이를 건의하고 수용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각종 계약체결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그동안 축적한 대북 신뢰와 경험을 살려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북한의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을 관광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북자 교육시 북한의 실상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교육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도 필요하다. 북한 참여는 관광사업 운영 및 수익사업에 대한 지식전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북한의 역할이 관광지 가이드 역할에서부터, 다양한 먹거리 및 지역특산물(개성인삼, 개성인삼술, 홍삼술) 등을 제공·판매하고 향후 관광지역 개발에 대한 자본 참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재원조달

관광자원개발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투자단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성사되는 데에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 필요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북한 지역 관광지구 및 시설의 효율적인 개발·유지·관리를 위해 기부금제, 스폰서십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게 명예, 사용권, 홍보제공 등의 이익을 제공하되,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에게 기부금 형태의 개발자금이나 스폰서십 형태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현재 시중에 큰 활기를 띠고 있는 적립식 펀드를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을 통해 북한 지역 관광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마. 대북 관광사업의 수익성 확보 방안

대북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광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치

북한지역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항상 일정규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 및 공무원 연수, 각종 종교단체, 친목동우회와 각종 회의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협상을 위한 체류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정 관광객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고교 학생 및 대학생들의 수학여행, 국토순례 및 졸업여행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차원의 지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에 대해서는 입산료를 인하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2) 관광비용 절감

일반 관광객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입산료 명목의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남한측 방문객은 같은 관광코스에 중국 관광객보다 약 5~6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높은 관광비용으로는 북한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입산료를 인하하되, 그에 따른 북한측 수입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숙박업, 토산품 판매, 각종 공연사업 등을 통해 북한이 관광객을 상대로 직접 운영하여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광 상품 개발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한 상품 개발도 수익성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관광 지역내보다 많은 위락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남북주민이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는 농민시장을 개설한다든지 먹거리 행사, 세시풍속 공연, 각종 남북 공동 학술·예술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광코스 또한 내금강 코스를 포함,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금강산의 경우 온정리~원산간 자유이동, 명사십리, 시중호, 총석정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 금강산에서 원산, 함흥, 평양, 백두산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광 상품을 보다 다양화, 차별화, 고급화해서 우리 사회 최고의 수요층을 겨냥할 수 있는 시도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금강산 지역을 보다 더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관광지 내 소비 증대

관광객들의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업자의 상업적 진출, 예를 들어 식당·임대업·숙박업·위락업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광지에서의 대규모 면세점 및 카지노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이벤트나 독특한 관광 기념품 개발, 현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관광지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허용이나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및 관광특구내 원화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관광지로의 접근성 제고

관광지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고급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로의 접근성은 높이고, 입북 절차를 보다 더 단순화시켜야 한다. 관광지역으로의 24시간 자유개별이동 및 접근, 관광증 발행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비롯, 투자 관련 활동(인력 및 물자반출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지역의 경우 원산 갈마비행장을 개방하여 항공을 이용해서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통관 절차가 길면 길수록 금강산 관광에는 불리하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비롯,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의 결정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V. 정책사항 및 결론

대북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대북 경제협력정책의 개선, 남한내 대북 경협과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북한간의 관계설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간 관계는 상호 체제에 위협을 주는 관계다. 북한은 남한에게 정치·군사적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위협을 주는 관계다.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남한이 북한에 주는 경제적 위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수록 북한이 갖는 체제의 불안전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의 통일,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로의 1체제, 1정부로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대남한 위협인 군사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당면해 있는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남한에 의한 대북 흡수통일의 위협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의미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의미를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경을 초월한 생산요소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방문과 관광이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상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